

내국인면세점의 영향과 대책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수행할 전담기구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작년 5월에 설립되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자금과 내·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주도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24일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제주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개장하였다.

내국인면세점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로 제주도 접근비용을 인하하여 제주도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관광 기념품점, 공항내 입점업체, 농수산물 취급점 등 관련 유통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내국인면세점 개점, 동절기 관광비수기, 도소매업의 계절적 영향 및 소비심리 위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는 하였지만 제주도 관광기념품점들은 내국인면세점 개점 이후 시기인 1월과 2월 중 평균 30%의 매출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미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국인면세점과 향후 추진될 7대 선도프로젝트의 성공이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상권도 같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어야 하기에 내국인면세점, 지역업체 및 제주도는 상생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내국인면세점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쇼핑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유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등 지역업체와의 간접적인 친화관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업체와 공동 홍보를 하거나 경영 노하우(know how)를 공유하는 등 지역업체와의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점 이후 3개월간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내국인면세점의 향후 전망이 결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급품목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통해 자체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는 단기적으로는 판매자 중심의 사고에서 고객만족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을 강화하는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독창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고 판로개척과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브랜드 파워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단기적으로는 제주개발센터 수익금의 활용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 49조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1차산업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내국인면세점과 지역업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계를 최소화시키고 이들의 상생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업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항면세점의 이전·운영주체의 이전·쇼핑아울렛과의 연계 등 내국인면세점의 현행 페르다임을 재검토하고 관광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을 지출한 내도관광객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의 도입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